

국제활동

미얀마 현지 기술자문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강영중 연구위원은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현지 기술자문을 위하여 미얀마의 양곤을 방문하였다.

이는 2014년 2월 7일 체결된 미얀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u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 MOLES)와 기술협력 협정체결 및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ILO-KOSHA 협력사업 일환으로 공단의 전문인력이 현지에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안전과 보건분야 인력이 각각 파견되었으며, 연구원에서는 기술전수 사업을 위하여 보건분야 인력을 파견하였다.

미얀마의 현실에 맞는 위험성 평가 적용 방안과 작업환경 관리 등과 관련한 자문 및 강의와 더불어, 현지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검수를 위한 기술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베트남 현지 기술지원 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 원용림 연구원은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현지 기술지원을 위하여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하였다.

이는 2012년 7월 체결된 베트남 노동보호연구원(NILP)과의 기술협력 협정체결 및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공단에서 수행중인 생화학물질 분석 등 직업병 진단 및 시험 시스템을 소개하고, 베트남의 직업병 관련 제도조사, 산업보건센터의 조직, 연구분야 및 역할 파악, 베트남 노동보호연구원 직업보건센터에 설치된 신규 생화학물질시험 설비 대한 분석, 기기조작 및 교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TIS와 일본 성능검정제도 합동 설명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인증센터는 11월 21일에 서울 래스틴 호텔에서 일본산업안전기술협회(TIS)와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상호인증에 협력키로 하고, 국내 보호구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안전인증센터의 안전인증을 통과한 시험성적서에 대해서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가 인정하기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의 안전인증 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일본 산업안전기술협회가 인정하기로 한 시험성적서는 4개 품목으로 안전모, 안전대, 방진마스크 및 방독마스크다.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센터는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이들 제품의 통일된 시험기준과 인정기준을 협의해왔으며, 이번에 상호 인정범위를 정하고 협력에 합의한 것이다.

안전인증센터는 이번 국내 보호구 시험성적서에 대한 일본측의 인정에 따라 국내 업체의 일본 수출에 따른 보호구 제품의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식·동정

●「지역사회 이웃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실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은 11월 12일 연구원 주변에 위치한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일대 농가에서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건강수호! KOSHA 사랑나누기」의료봉사활동 전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10월 23일 무료급식소인 북정경로식당(울산 중구 소재)에서 독거어르신 120여명을 대상으로 혈압 및 혈당검사, 의료상담, 일반의약품 지급 등 「건강수호! KOSHA 사랑나누기」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직업건강연구실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넘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년 의료 봉사활동을 전개 중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식지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연구원장 메시지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

성남테크노밸리 야외공연 중 환풍기 덮개붕괴로 16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 결실의 계절인 10월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지난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 치료나 예방을 통해 회피 가능한 사망비율이 10명 중 4명 정도가 된다는 것인데 이번의 경우에도 회피 가능한 사고여서 마음이 더욱 아프다.

기본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잠재적 위험이 있는 것을 찾아 설계, 설치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이 평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이 녹록치만은 않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시설물들이 생겨나고 또한 관리 대상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각만큼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안전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안전의 이행력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안전조치는 해당 분야에서 사고로 인명 손실이 다수 발생한 후에 이뤄진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에 산재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완벽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일차적 희망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위험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안전보건공단의 슬로건인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는 위험시설의

설계, 설치 및 사용관리 주체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 모두에게 아주 필요한 문구이다. 그런데 미국 금융위기를 예견하여 유명해진 니콜라스 탈레브는 그의 저서 <블랙스완>에서 위험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기술하고 있다. 9·11 테러의 경우 만일 사전에 테러가능성을 생각할 수만 있었다면 전투기를 발진시켜 쌍둥이 빌딩 주변을 선회하고 여객기 조종실 출입문에 방탄장치를 설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이다. 즉 알고 있는 것에서는 위험이 나오지 않는 법만 만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요즈음 같은 위험사회에서는 정부, 학교, 기업, 단체는 물론 개개인까지 안전을 보는 능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권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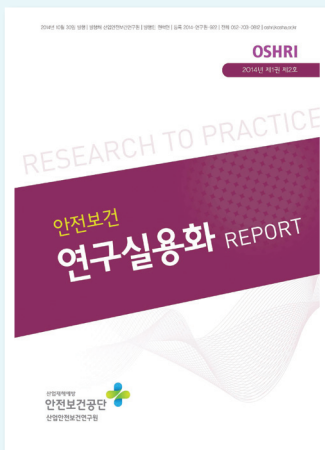
안전보건 단신

■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REPORT 제2호' 발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팀에서는 연구결과, 지식,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실용화(Research To Practice, R2P)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보건 연구실용화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연구실용화 REPORT는 지난 6월에 창간호를 발간하였으며 11월에 제2호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석면분석 표준시로 개발 및 활용' 등 7편의 원고가 게재되었다.

관련 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 (oshri.kosha.or.kr)에서 다운 받아 볼 수 있다.



■ 한국안전학회 2014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은 2014년도 한국안전학회 추계 학술대회(10.23 ~ 10.24, 경주 드림센터)에 참석하여 "IT와 산업안전 기술의 로드맵 구축에 관한 연구" 등 1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안전연구실의 정성춘 연구위원(공동연구자: 권준혁 연구원, 박용규 연구위원)은 "건설현장 작업발판에서의 재해 특성에 관한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 논문은 작업 발판에서 발생하는 재해특성의 분석을 토대로, 3~20억 미만 건설공사와 1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 재해예방대책의 집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연구원 발전방향 국외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건강연구실은 11월 5일 핀란드 국립산업보건연구원(FIOH) 이사장과 국제산업보건학회(ICOH)회장을 역임한 Jorma Rantanen박사를 연구원으로 초청하여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세계적인 안전보건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Jorma Rantanen 박사는 직업건강과 관련하여 약 430여개의 논문을 저술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연구원이 직업건강 관련 국제 동향 및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자문회의에서는 핀란드의 산재보고체제와 산재은폐는 어떠한지, 동절기 미끄럼 연구의 현황, 건강증진체계 (total health promotion)연구 등에 대해서 활발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 산업보건분석 세미나 공동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은 11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검진기관 분석자들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와 공동으로 산업보건분석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산업보건분석협의회 회원,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검진기관 분석자 등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권혁면 연구원장의 "위험사회와 안전보건"에 관한 특강이 있었다.

또한 직업환경연구실 이광용 연구원의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 현장평가 및 직업건강연구실 이미영 연구위원의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분석자 자질향상 및 전문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소통 및 리더십 교육과 근로복지공단 폐질연소물질의 측정 및 분석방법과 직업병 사례" 발표가 있었다.



안전보건 단신

■ 화학물질정보 Open API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는 "국민중심 서비스 정부 3.0" 실현을 위하여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화학물질정보 Open

API* 및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추진하였다.

약 7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구축된 이번 결과물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Open API 형태로 개방함으로써 정보 이용자가 맞춤형 화학물질정보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화학물질정보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써 기존 홈페이지 보다 접근성 및 편의성을 한층 강화시켜 화학물질정보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화학물질정보 전용 홈페이지 : msds.kosha.or.kr
- Open API 신청 : www.data.go.kr

※ Open API :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개방형 프로그래밍 환경)

공단이 보유한 MSDS 정보를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정보 등을 타 정보 시스템에서 네트워크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으로서 사용자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을 말함

■ 2014년도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 개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는 10.31(금)에 서울역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2차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원장(위원장), 화학물질센터 소장을 비롯하여 노사단체 관계자, 산업의학, 화학물질, 작업환경, 경제학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하여 2014년도 유해성·위험성 평가 사업의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금년도 유해성·위험성 평가 사업에서는 연구대상 물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특별 관리물질, 관리대상 유해 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허용(노출)기준 설정 등 법적 관리수준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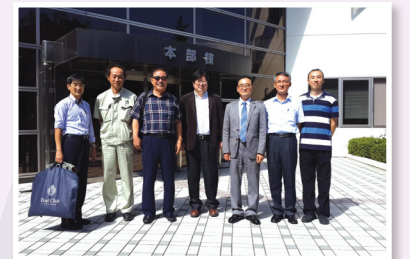
국제활동

■ WISH 2014 안전보건 국제워크숍 참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은 10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일본 노동안전위생연구소(JNIOH) 주관으로 일본 도쿄에서 열린 WISH 2014(Workshop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2014)에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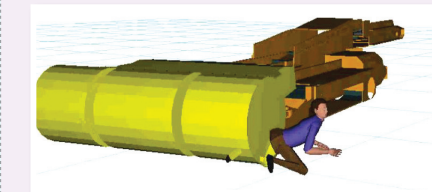
WISH 2014는 한일 간의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국제워크숍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뉴질랜드 등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연구원,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충북대 등이 참여하여하고 있다.

안전연구실에서는 최상원 연구위원, 최승주 연구원이 참석하여 "The outlook for global unity of hazardous area in Korea", "A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lip Resistance Tester" 등에 대해 발표하고 상호간에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다.



■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동작분석기법 적용연구 조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연구실은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광업재해예방연구소(NIOSH OMSHR)등을 방문하여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건설기계와 근로자간의 충돌위험분석 연구"와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자



충돌재해예방 접근 감지시스템의 개발 연구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 하였다. 이번 사례조사에서 파악된 건설기계와의 충돌재해예방 연구 결과는 관련 국내 연구 및 기술지침 제·개정 등에 반영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